

빅스 바이더벡과 20세기 초 영문학의 흐름상 유사성에 대한 고찰

김형천^{1*}, 조태선²

¹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n the Similarity between Bix Beiderbecke and early 20th English Literature.

Hyoeng Chun Kim^{1*} and Tae seon Cho²

¹Dept. of Applied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²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빅스 바이더벡이라는 코넷 연주는 일반적으로 백인재즈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1920년대 초 흑인 재즈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빅스 바이더벡의 독창성이 20세기 초 영문학에서의 새로운 사조였던 '의식의 흐름'이라는 표현법과 그 유사성이 깊은 것으로 본다. 음악과 문학과의 흐름상의 유사성에서 두 분야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모호하다. 하지만 표현방법 면에서 볼 때 두 다른 예술 분야에서의 유사성은 충분히 흥미로운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한 재즈연주자의 연주가 같은 시대 영국의 문학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면, 현재를 사는 음악인들에 의한 다른 분야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상 연관성에 대한 연구 또한 보다 폭넓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Bix Beiderbecke is a cornet player known as the first white jazz musician with white sound. In this study, we will see the similarity between his originality in black jazz field and 'Stream of consciousness' in 20th century's english literature. It is hard to verify how these two arts affect each other, and it is also very interesting to see the resemblance between jazz and the literature in their forms of expression. Especially, a jazz artist should have common understanding with english literature in the way of the expression, we ar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different form of the artistic works and study more about them to express in our way.

Key Words : Bix Beiderbecke, White Sound, Black Jazz, Stream of consciousness, 20th century's english literature.

1. 서 론

20세기 초 미국 재즈는 흑인이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백인연주자들의 입장에서 흑인 밴드참여와 흑인답게 연주하는 정도로 그 수준이 한정적이었지만 그 당시 빅스 바이더벡(1903-1931)처럼 백인다운 재즈를 처음 선보인 인물도 드물다.

시기적으로도 아직 백인다운 재즈를 선보이기에는 흑인 재즈의 위세가 너무 강하였으며 흑인 재즈 또한 아직

어떤 정립, 정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인들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재즈의 흐름상에서 여러 가지 음악적 시도가 있었지만 흑인이 그 뿌리였던 재즈라는 음악 위에 백인다운 사운드가 탄생되어진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하여 오늘날의 음악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시대 상황에서 백인다운 재즈

*Corresponding Author : Hyoeng Chun Kim

Tel: +82-10-8223-5519 email: hyung_chun@yahoo.com

접수일 12년 06월 14일 수정일 12년 07월 02일

계재확정일 12년 08월 09일

를 처음 시도한 빅스 바이더백이란 인물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의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와 당시 미국 지식인층에서 받아들였던 영문학의 흐름, 특히 20세기 초 모더니즘 정신에 기초한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토대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를 중심으로 그 표현방식에서의 두 분야에서의 연관성을 찾아 함이다.

2. 본 론

2.1 시대배경-1920년대 영국의 상황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전쟁 직후에는 호경기였으나 1년 반 정도 후 갑자기 불황에 빠지면서 미국에게 세계 경제권의 우위를 빼앗겼다. 이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쟁이 격화됨과 더불어 노동당이 세력을 얻어 1924년에는 최초로 노동당 내각이 서게 되었다. 그리고 1926년 5월에는 동맹파업이 벌어졌고 탄광파업은 11월 까지 계속되는 등 소요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기존의 질서, 즉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서 벗어나 개인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성을 표출하는 특징을 보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에서뿐 아니라 예술분야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2.2 20세기 초 영문학-제 1차 세계대전까지

영문학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 여러 나라의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아일랜드의 문예부흥 운동도 영문학에 켈트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1914년에 제 1차 대전이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나자 불안과 혼란의 20세기적인 작가들, T. S. Eliot, James Joyce, D. H. Lawrence, Virginia Woolf, Aldous Huxley 등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2.3 1920년대-모더니즘

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컸고, 구가치에 대한 불신과 인간성 자체에 대한 회의 등이 대전 후의 사회를 뒤덮었다. 19세기의 낙천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현대적인 정신풍토가 출현했다. 이 시대의 문학은 개인주의적, 주지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20세기가 되어 무성하게 쏟아져 나온 소 잡지 등을 근거로 대담한 실험적 수법이 시도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를 '실험의 시대' 또는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시대는 영문학사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한 시기 중의 하나로 꼽힌

다.

이때의 대표적인 문학경향으로는 Eliot의 전통주의와 Lawrence의 원시적인 생명찬미, 의식을 유일한 근거인 실재라고 생각하는 Woolf의 사고, Joyce의 예술지상주의, Huxley의 회의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전쟁에 의한 질서붕괴, 그리고 그 후의 혼란과 새로운 생활태도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2.4 20세기 초 영문학의 새로운 사조-의식의 흐름기법

20세기 소설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20세기 초기의 소설은 외적 자연주의에서 내적 자연주의로 옮겨져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작품에 옮기는 데 관심을 가진 '의식의 흐름' 기법의 작가들인 James Joyce(1881-1941)와 Virginia Woolf(1882-1941) 등이 있었다.

Virginia Woolf(1882-1941) : 인물의 내면을 헤치고 들어가서 의식 속의 감정과 사고가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는 그대로를 인물에게 말하게 하는 '의식의 흐름' 내지는 '내적 독백'의 기법을 사용한 작품을 썼다. 거의 작품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지만 인물내면의 묘사에 중점을 두는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대표작품으로는 [달러웨이 부인(Mrs. Dalloway, 1925)]과 [등대로(To the Lighthouse, 1927)] 등이 있다. [4]

James Joyce(1882-1941) : Woolf와 같은 섬세함은 없지만 남자의 대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의식에 감각·상념·기억·연상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문학에 이용하여 [젊은 예술가의 초상 (1916)]과 같은 작품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조이스는 이 방법을 에두아르 자르맹이란 작가의 작품인 [월계수는 베이었다 (1888)]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 [율리시스 (1922)]에서도 의식의 흐름을 철저하게 추구하여 1인칭적인 시점에서 주인공의 성격 전체를 보일 수 있도록 기본이나 감정이 리듬이나 패턴을 수반하여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내면의 독백'이라고 한다.[3]

이처럼 Woolf와 Joyce가 가장 대표적인 '의식의 흐름' 기법의 사용자들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고전적인 기술 방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플롯이 없으며 인물의 생각이 진행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20세기 초 영문학에서 가장 신선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기존의 형식과 틀을 벗어난 것이었다. 또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했던 기존적인 부분을 가장 인간적인 것에서 찾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결국 현대 소설, 특히 심리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설 기법의 하나로, 등장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기억, 자유연상, 마음에 스치는 느낌들을 여과 없이 써내려가는 것이다. 즉, 주인공이 행하는 행위나 사건을 그리기 보다는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건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내적 독백과 함께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작중 인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과거의 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의 주관 속에 철저히 용해되어 주관화된 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인물들 간의 대화나 행동, 사건의 전개 등 소설의 전통적 서술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품 속 인물의 의식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는 만큼 논리적 인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뒤섞이기도 한다. 기존소설의 전통적 서술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대화와 행동을 기술해 나가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에 반해 의식의 흐름 기법은 한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기에,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무시되는 것이다. 즉, 논리적 인과관계 없이 인물의 생각이 제시되는 것이다. [5]

이러한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보여준 표현 방법이 20세기 초 짧은 활동을 했던 코넛 연주자 빅스 바이더백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에 당연시 되었던 연주 방식에서 벗어난 시도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면 참으로 재미있는 비교가 아닐 수 없다.

2.5 빅스 바이더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

빅스 바이더백은 1903년 아이오아주 다벤포트에서 태어났다. 독일인을 조상으로 둔 빅스 바이더백은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았지만 정식 유럽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코넛을 배웠다. 축음을 잘 상대로 스스로 음악을 배운 탓에 그의 연주는 정석이 아니게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빅스 바이더백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기표현’이란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자기 자신을 거짓 없이 표현하려 했던 것이 그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 재즈는 흑인 연주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잡고 있었다. 물론 뉴올리언스에 흑인 밴드와 때를 같이한 백인 밴드도 있었고, 빅스 바이더백 자신이 영향 받았던 백인 연주자들이 존재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빅

스 바이더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인 연주자들은 동시대 흑인을 흉내 내는 정도의 연주를 보인 것이지 빅스 바이더백만큼 독특한 연주 느낌을 내지는 못했다.

빅스 바이더백의 연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당시 흑인들의 연주에서 유행처럼 들려지는 강한 비브라토가 없고, 이론적이거나 화성에 고정된 연주를 보이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에 맞춰진 연주를 하지 않은 점이다. 빅스 바이더백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빅스 바이더백의 대표 음반 중 하나인 “Riverboat Shuffle”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연주 느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독창적인 의도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빅스 바이더백이 백인인 점과 그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고 보수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지식층이 공유하고 있었던 영국의 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았음은 분명하다.

빅스 바이더백이 교육받고 자라던 시기와 연주자로서의 길을 가던 시기가 바로 영문학 시기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새로이 태어나던 시기와 겹치는 것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에 그 유사성이 매우 깊다. 흑인들 보다는 보수성이 강한 부모로부터 영국의 문학을 접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문학의 새로운 사조라는 것이 개인 내면을 표현하고 형식이 없는 특징을 가졌다.

빅스 바이더백의 연주에서 보여 지는 특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대 유행하던 흑인들의 연주 방식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단지 흘러가는 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 외부적인 요소들 중에는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가져다 준 개인주의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의 연주 특징인 ‘표현 형식의 자유’라는 면에서 볼 때 문학에서의 영향도 있는 것이다.

흑인 연주라는 커다란 매너리즘은 Virginia Woolf의 ‘Modern Fiction’에서 언급한 ‘materialist’ 이란 단어와도 일맥상통 한다. 당시 유행하던 19세기 문학에서 부터 보여 졌던 고전적인 표현 방식을 비판한 이 비평문에는 다음과같은 말이 있다. Virginia Woolf는 Wells, Bennett, Galsworthy는 당대에 활동하는 중요 작가들이지만, 그들의 문학적인 결함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대상으로 삼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materialist’로 표현한다. 그녀는 비평문에서 새로운 소설의 주장으로 내면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소재선택의 자유로움과 그 표현 형식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11]

결국 Woolf는 삶의 외면적인 것들에만 치중한 작가들을 비판하는데 이는 20세기 초 흑인 연주를 모방하던 백

인 연주자들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초기 빅스 바이더백이 모방하고 존경했던 백인 연주자들 또한 흑인들의 새로운 재즈 사조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빅스 바이더백이라는 인물은 훗날 마일즈 데이비스가 시도했던 쿨 재즈의 근간이 되는 연주방식을 이미 20세기 초에 보였다. 버지니아 울프가 ‘의식의 흐름’ 기법의 대가였던 제임스 조이스를 현대문학의 선구자로 인정한 것처럼 cool한 음색의 시초라고 보여 지는 레스터 영이나 이후의 백인 연주자들이 게리 멀리건, 췌 베이커의 연주의 시작은 빅스 바이더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백인 재즈라는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틀을 깨려고 한 경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빅스 바이더백이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처럼 외면적인 표현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면서 저절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6 쿨 재즈는 빅스 바이더백으로부터

빅스 바이더백이 활동했던 20년대는 흑인 주도의 흑인다운 강한 소리와 비브라토 음색이 주를 이루고 있을 시기이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시점에 미국 서부에서 발달되어진 백인다운 느낌이 강조된 쿨 재즈가 선을 보이게 된다.

쿨 재즈는 일반적으로 마일즈 데이비스가 그 효시로 알려진 부분이지만, 실상 마일즈 데이비스는 자신이 쿨 재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Birth of the Cool’ 앨범에서 마일즈 데이비스의 영향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편곡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리 코니츠(Lee Konitz)와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 같은 백인 연주자들이 함께 협연 하였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다른 연주자들에 의하여 쿨 재즈적인 사운드는 이미 시도되어진 바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비밥재즈에 대한 식상함으로부터 기인된 새로운 소리였던 쿨 재즈는 마일즈 데이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배 연주자인 레스터 영(Lester Young)이 이미 음색적인 면에서 비밥의 형식을 벗어난 부드러운 비브라토가 약한 쿨 재즈적인 방식을 보였다.[1] 레스터 영은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쿨 재즈 탄생이전에 백인다운 음색을 내고 있었다. 빅스 바이더백과는 6살 연하였다는 것과 레스터 영 그 자신도 빅스 바이더백과 같은 트럼펫 연주를 했었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레스터 영 이후 그의 음색에 많은 영향을 받은 백인 연주자들이 대거 등장할 하게 되는데, 리 코니츠, 게리 멀리건을 비롯해서 췌 베이커(Chet Baker),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과 폴 데스몬드(Paul Desmond)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레스터 영을 쿨 재즈의 효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의 음색은 쿨 재즈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빅스 바이더백이라는 선구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백인다운 음색은 결국 백인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의 음색은 당시 흑인음악의 그것에서 탈피된 남들과는 다른 사회배경에 의한 시도였을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문학에서 기존의 관습적인 형식을 깨고 등장한 많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재즈의 흐름에서도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는 계속 되어져 왔던 것이다.

3. 결론

모든 예술분야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그 흐름에 있어 유사성이 발견된다. 전혀 다른 분야라도 그 시대배경과 전혀 무관하기는 힘든 것이다.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예술 분야를 보더라도 사회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다. 재즈 초기에서 나타난 빅스 바이더백이란 인물과 영문학의 흐름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당시 사회 배경과 모든 예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비형식성,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흐름을 볼 때 간과하기에는 그 유사성이 많다. 특히 정규교육이 아닌 독학을 통하여 자신의 연주세계를 펼쳤던 빅스 바이더백과 같은 인물에게 20세기 초 영문학에서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 아이러니지만 빅스 바이더백의 연주는 그 당시의 연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고 축음기를 통하여 음악을 익혔다면 당시 흑인 음악을 따라 갔을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데, 정반대의 느낌을 보인 것은 무엇인가 다른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그 영향이 여러 방향에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영문학과 연관성에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을 두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빅스 바이더백과 ‘의식의 흐름’이란 문학 표현법은 동시대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시도임에 틀림이 없다. 한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의 유행과 흐름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거스르면서 또 다른 새로움을 탄생 시키는 이른바 선구자적인 시도는 항상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현대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의식의 흐름’이란 표현법을 고전 형식의 탈피로 시도 했던 버지니아 울프와 제임스 조이스의 행로가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흑인 음악이라는 형식이 팽배한 시대에서 그에 대한 탈피로서 빅스 바이더백이 보여준 음악적 표현에서의 시도가 있었다. 그의 음악적 표현방법

과 '의식의 흐름'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날의 시대상과 예술분야에서 또 다른 탈피를 시도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학에서 표현되어지는 표현방법의 시도를 음악에서 소리 예술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References

- [1] Yui Shoichi, "A History of Jazz", Sam Ho, 1995.
- [2] Son Mi Ryong, Modernism Novel, Korea Foreign Univ. Master's Thesis 2006.
- [3] Kim Sun Hae, James Joyce "the stream of consciousness" : Focused o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Kang Nueng Univ. Master's Thesis 2005.
- [4] Min Dae Gi, Creative Method of Virginia Woolf, Soo Won Univ. Doctor's Thesis 2003.
- [5] Ha Yong Ran, 1930's Korean Modernism Novel : Focused on 'the stream of consciousness' In Jae Univ. Master's Thesis 1999.
- [6] Park Myong Hee, Aesthetic Formalism shown in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Korea Educatinal Univ. Master's Thesis 1999.
- [7] Alyn Shipton, A new history of jazz, Continuum pp. 98-99, 2001.
- [8] Stuz Kuttle, Giants of jazz, Imagine pp. 53, 2006.
- [9] Ecklund, Peter, The Further Adventures of Bix Beiderbecke, Bookworld Services 2006.
- [10] Lion, Jean Pierre, Page-Fort, Gabriella, Bix (The Definitive Biography of a Jazz Legend), Continuum Intl Pub Group 2007.
- [11] Dainton, Barry, Stream of Consciousness(Unity And Continuity in Conscious Experience), Routledge pp. 46-47, 2006.
- [12] Humphrey, Robert, Stream of Consciousness in the Modern Novel, Teemeka 1984.

김 형 천(Hyeong-chun Kim)

[종신회원]



- 2012년 2월 :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음악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여주 대학교 실용음악과 조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재즈, 재즈기타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부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